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의료보험료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름학교를 통해 「진보의력」의 내부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세계 자본주의 : 마르크스 공황론 이해, 신자본주의, 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발전과제 등을 강좌로 채택하면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나, 문건의 표출된 내용만으로 좌익,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 제시가 미흡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1年 10 月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송정호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발기인대회

나. 작 성 자 : 김용익 외

다. 발행처(일)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1994. 9.24)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련 or 진보의련)의 《발기인대회 자료집》으로 발기제안서, 격려사, 발기선언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의 조직목표가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진보적 변혁운동(즉 사회주의지향)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른바 진보적 변혁사회라는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 보건의료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자본 진보운동으로 방향타를 분명히 잡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하자.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의료대중운동의 광범위한 형성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진전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물줄기를 창출하는 것이며, 자본자적 보건의료체계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한국사회 보건의료현실을 극복할수 있는 유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5면, 8면) 외 12면 등



- 여기서 진보(의)련이 반(反)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하는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진보사회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임을 시사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운동권에서 지칭하는 진보란 칼 맑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사회(낡은사회)를 지양하고 공산주의(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진보라고 칭함. 진보련의 조직과제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것은 아래의 주장에서도 확임됨.

둘째, 보건의료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적 과제로 변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운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체제변혁적인 사회주의운동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고 지향하는 주장이다.

“ 보건의료부문운동에 있어서도 과제는 유사합니다... 상층보건의료인들은 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적 과제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한계로 말미암아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대중조직의 이완과 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운동을 변혁적이게 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14면)

세째, 보건의료부문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일환으로 반자본 진보노선투쟁을 주장하며 이는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동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노동자계급운동'이란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 즉 사회주의운동을 의미하며, 또한 '노동해방'이란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사회주의(공극적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상징하는 용어인바, 이는 보건의료운동의 사회주의 지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부분에서도 노동계급운동의 반자본 진보 대의를 현실화할수 있는 투쟁의 매개를 찾아낼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전국적으로 모인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와 목표, 그것은 노동해방입니다....”(16-17면)

###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결성준비를 알리는 발기인대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 반자본 진보운동을 전개하며, 보건의료운동의 과제가 사회주의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11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등      열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준) 짧은 소식 창간준비 3호”

나. 作 成 者 : 진보의련(준) 사무국 편집부

다. 發 行 處(日)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준) ( 1995. 1. 16. )

## 2. 分 析

## 가. 概 要

본 문건은 이른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준)'에서 발행한 29쪽 분량의 창간준비 소식지로서,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의료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의학을 자본주의의 의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問題內容 分析

1)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바로 병원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후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이 착취당하고, 소외당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는 말살된다고 하는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의 권위주의와 잠무위주의 인턴생활은 ...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18쪽 5-10행)

2) 현재 요구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4년도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국제화이데올로기 공세로 전체변혁운동진영에 공세를 가해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의료의 강화가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보건의료개혁의 내용이었다. 지금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시기인 것이다.”(20쪽 12-19행)

3) 예방을 의학을 하게 된 계기를 기술하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등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의료체제를 미화하고, 의료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의료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1.예방의학을 하게 된 계기 ...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끈질긴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등등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18쪽 1-21행)

4) 예방의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의학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의학을 이용했다는 의미이다.



“어느 예방의학교수의 말씀처럼 예방의학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최초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 의학을 이용했다.”(18쪽 26-29행)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구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의사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자본주의적 의료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맞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안들을 만들어내고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보건의료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실패의 경험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에 의한 문제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정책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4) 예방의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소련에서 생겨났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진보적인 의사들이 자본주의 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방 의학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은 맑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의료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주의 의료방법인 예방 의학을 미화하며, 이를 자본주의 의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 그것에 동조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 의료체제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1 年 11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 鑑 定 書 (01-7660)

## 1. 對 象

가. 文 件 名 : 96년 진보의련 겨울 학교

나. 作 成 者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

다. 發 行 處(日) : 상동 (1996 )

## 2. 分 析

### 가. 기 본 성 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의 의료단체를 만들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보 운운의 주장의 경우는, 단순한 정치학적 의미의 진보의 의미가 아니다.

현재의 韓國社會의 자본주의를 중심 축으로 하는 정치 경제의 부정하는 관점에서의 계급모순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는 투쟁의 축을 형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투쟁의 경우는 현재의 한국사회 대상의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의 관점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들의 연합의 모임이라도, 鬪爭을 행함에 있어서 좌파의 관점을 분명히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의료인의 階鬪 변혁투쟁 참여를 강조하는 본 문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세부분석

1) 의료진보인들의 경우, 정치투쟁에의 실천을 위한 참여와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계투 당위화 전제의 선행 내용이다.

p.2의 10-21행 : “ 2) 보건의료 ----- 해야한다. ”

2) 연장선에서 反資本 연대의 정치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인들이 주체가 계투 변혁투쟁의 참여 선동의 주장이다.

투쟁 강조의 선상에서 진보진영의 改良化를 주장하고 있다.

p.2의 하에서 3-p.3의 14행 : “ 4) 전체변혁운동진영과---경시하는 것이다. ”

p.9의 1-20행 : ‘ 진보정치운동의 ----- 주도하고 있다. ’

3) 결과적으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좌파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전선의 본격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 대상의 계투 변혁투쟁 강조의 주장이다.

p.13의 3- 13행 : “ 2) 진보적 보건의료 ----- 지점이다. ”

p. 17-20의 < 3. 결론 >의 내용전체.

4) 한편 경영 개선 운운하며 병원의 경영상태의 개선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의 경우는 계투 변혁투쟁의 무력화의 전술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계투 변혁투쟁 당위화의 관점이다.

p.32의 11-p.33의 전체 : “ 0 자본의 합리화 -----파악해야한다. ”

### 3. 總 評

앞의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문건의 경우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의, 진보를 자처하는 의료진영의 주장이 담겨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보의 경우는 政治學的인 의미의 단순한 개혁의 진보가 아니며, 현재의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사회로 규정하면서, 은연중에 의료인이 중심이 된 체제부정의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가 의료인들의 진보적인 투쟁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의 경우는 階級矛盾에 의거한 사실상의 한국사회 대상의 계투 변혁투쟁 강조를 담고 있는 <용공>의 내용이다.

2001 年 11 月 12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오 문 균 印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 학습자료집  
 나. 作 成 者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다. 發 行 處(日) : 未詳

## 2. 分 析

### 가. 性 格

이 文件은 이른바 상기 保健醫療運動團體의 학습자료로 묶어진 성격의 資料모음임

### 나. 內 容

#### (1) '보건의료의 정치경제학'에서

1)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보된, 그리고 사용방법으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자본주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주요측면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진보된, 그리고 사용방법으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비판적 인식의 주요측면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다.”(14쪽, 4-6행)

2) 자본주의 보건의료의 비판에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 건강 정의, 사적 유물론의 분석 틀로 노동과 건강과의 관계 개념화 및 이론화, 계급투쟁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의 건강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는 등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원용하는 외국학자의 논문을 번역 게재하였음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과 그들이 창출한 생산물 사이의 가치, 잉여가치는 자본가 이익에 기초가 된다. 또한 잉여가치는 착취의 구조적 원천이다.”(46쪽, 28-29행). “

필자가 건강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발견한 것은 마르크스의 정식이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운동 목적을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중재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그들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연과 그들 고유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사회에 두었다.”(96쪽, 20-24행). “이 논문에서는 사적 유물론을 분석 틀로 사용하여, 노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이론화시키고자 한다.”(129쪽, 15-19행). “계급투쟁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의 건강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152쪽, 11-12행)

(2) ‘복지국가의 쟁점’에서

3) 복지국가는 신보수주의나 맑시스트들의 주장과 같이, 후퇴나 붕괴라기보다는 여전히 건재하며, 모든 국민과 노동계급의 안전한 삶은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신보수주의나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국가의 후퇴 내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263쪽, 5-7행). “..모든 국민과 노동계급이 더욱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성장이...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347쪽, 10-14행).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349쪽, 22-25행)

(3) ‘대중운동으로서의 보건의료정치운동에 관하여’에서

4) 진보적 보건의료활동가들이 방법론으로서의 보건의료정치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 옹호라는 이념을 가진 것이며, 전체변혁운동 이념과 함께 반자본주의적 보건의료체계 혹은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의 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보건의료정치운동이라는 유기체의 뇌수에는 이미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옹호하는 진보이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는 전체변혁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함께 가는 것이며,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반자본주의적 보건의료체계 혹은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의 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57쪽, 21-24행)

5) 전체변혁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 진보적 정치세력은 향후 反資本 對敵 戰線構圖



를 강화해야 하며, 보건의료정치세력은 이러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부분의 반자본 대립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음

“특히 전체변혁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진보적 정치세력은 향후 반자본 대적 전선 구도 속에서...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 주도의 반자본 대립전선이 형성된다면, 보건의료정치세력은 이러한 정치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고...보건의료부분의 반자본 대립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58쪽, 27행에서 59쪽, 1행까지).

(4) ‘보건의료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6) 최근 구성된 진보련과 민의련은 좌파적 이념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원칙에 다시 복귀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음

“.., 최근 구성된 진보련과 민의련은 좌파적 이념지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바, 사실은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원칙에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18쪽, 右段 5-12행)

7) 보건소 활동의 강화는 제도 개선이나 장기적으로 많은 수의 진보적 보건의료인을 공공보건 의료에 진출시켜 조직화해야 하며, 통일의료보정체계 구축은 보건복지부와 그 주변기관에 뿌리 박고 있는 반동적 인맥을 부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였음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최대한도의 제도 개선을 이룩하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공공보건 의료에 진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23쪽, 右段 3-10행). “현재의 맥락에서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방안이 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와 그 주변기관에 뿌리 박고 있는 반동적 인맥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26쪽, 左段 20-25행)

(이하여백)



### 3. 總 評

이 기사문에서는 의료보건운동의 학습자료를 분석했으며, 그 정리는 아래와 같다.

1) 자본주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주요측면을 정리하였다. 2) 자본주의 보건의료 비판에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 사적 유물론의 분석 틀을 원용하는 외국 학자의 논문을 번역해서 게재하였다. 3)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안전한 삶은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성장의 선행과 함께 자본주의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4) 진보적 보건의료활동가들이 방법론으로서의 보건의료정치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 옹호 이념과 함께 전체변혁운동의 반자본주의적 보건의료체계 혹은 사회주의적 保健醫療像의 구체화이다. 5) 보건의료정치세력은 반자본 적대라는 정세의 분석으로 반자본 대립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6) 최근 구성된 진보련과 민의련은 좌파적 이념지향과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나, 원칙으로 복귀라는 점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7) 보건소 활동의 강화는 제도 개선이나 장기적으로 많은 수의 진보적 보건의료인을 공공보건에 진출시켜 조직화해야 하며, 통일의료보장체계 구축은 보건복지부와 그 주변기관의 반동적 인맥을 부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資料集에는,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외국학자의 보건의료운동 관련 글 번역, 복지제도, 보건의료자료로 제시돼 있으며, 그 가운데 마르크스주의 唯物史觀 등을 원용하는 자본주의 보건의료의 비판, 保健醫療政治運動이 노동자계급 이념과 함께 전체변혁운동의 반자본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保健醫療像의 구체화이며, 보건의료정치세력은 反資本 敵對의 對立戰線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며, '進保健'과 '民醫聯'은 좌파적 이념지향의 가장 오래된 社會主義 추구라는 등과 같이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정당시하는 宣傳 部分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容共的 表現物이라 하겠음

2001 年 11月 14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김 승 호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투쟁과 보건의료의 사회화

나. 作 成 者 : 권정기 (의보연 교육홍보국차장)

다. 發 行 處(日) : 상동

## 2. 分 析

### 1) 개요

0 이 문건은 권정기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투쟁과 보건의료의 사회화' 논제의 6쪽 분량의 글로써,

### 0 전반적인 내용이

- 보건의료의 사회화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투쟁의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음.

### 2) 내용 분석

(1) 보건의료의 사회화 목적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음.

### < 예문 >

-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먼저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가 상품으로서 구매력이 있는 경우에 ... 즉,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보건의료의 주체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1-2쪽)

(2) 문민정부와 독점자본이 '국제화와 경쟁력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남한민중의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통해 노동계급과 민중이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확장해 나갈 것과 반 자본통일전선을 형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예문 >

- 김영삼 정권과 남한의 독점자본가들은 '국제화와 경쟁력강화'라는 매우...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장개방과 노동자의 한자리수 임금억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통합일원화 투쟁은 곧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확장하여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보건정세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 운동진영도 반 자본 통일전선의 기초하에 의보통합일원화 투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3-4쪽)
-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세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아방과 자본 및 국가 권력을 한축으로 하는 타방과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계급투쟁의 역동적인 과정에 다름 아니다...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싸움은 보건의료부문 내부에서 독점자본운동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자본과 그들의 국가기체와 이번 싸움을 통해 노동계급과 민중에 근거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진보적 보건의료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반자본 진영의 대립투쟁인 것이다...궁극적으로 독점자본과 권력의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탐욕스럽고 무정부적인 부르주아적 관점, 반민중적 관점을 폭로하고 타격해야 하는 것이다. (5-6쪽)



###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문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방선동하면서 보건의료의 사회화 목적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독점자본가들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통해 반 자본통일전선을 형성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고 반 자본투쟁을 촉구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1 年 11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송 경 호 印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 나. 作 成 者 :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준비팀
- 다. 發 行 處(日) : 상등.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진보의련 조직활동론 준비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주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의료활동액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유인물임.
2. 사회를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에서의 생산관계의 모순의 심화를 역설하고 있는 바, 이는 맑스주의의 사회관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

<예시>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가는 자본운동의 법칙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된다(1)

자본주의에서 생산현장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노동계급의 투쟁은 바로 생산현장에서 출발하게 되며,--(7)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과 불건강을 초래하는 규정적인 힘은 자본관계-착취관계-그 자체이다(12)

--진보의련의 이념적 지향은 '자본관계의 철폐'이어야 한다(12)

자본주의 착취체제-생산양식-자체를 철폐하고,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노동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20)



3. 또한 국가를 계급사회의 착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공적 폭력체계로 보고 있는 바, 이 또한 맑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

<예시>

국가란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제사회라고 하는 계급사회의 착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공적 폭력체계이다(18)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조아독재사회이며 그 국가가구는 부르조아독재이다(18)

4. 사회변혁은 국가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투쟁세력들과 연대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

<예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부문운동이다(5)

우리가 추구하는 부문운동의 최종목표는 사회변혁에 있다. 하지만, 사회변혁이라는 것이 국가변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지적 성격의 부문운동은 국가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동전에 기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변혁을 위한 자신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5)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도록 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6)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사회를 기본적으로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2. 나아가 국가를 지배계급의 폭력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이른바 네오 맑시즘의 기동전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하고 노동계급이 운영하는 사회변혁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4.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옹공성 문건으로 사료된다.

2001 年 11 月 1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조 용 관 印



##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2001년 정기총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2001. 2.3)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2001년 정기총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의 2001년 사업기조, 각 부서 사업계획 및 재정결산서 등 동 단체의 활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이 좌파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자인하며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건전한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 현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결국 현체제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 2001년 진보의련 사업기조(안) - 좌파 보건의료운동의 주도권 획득을 위하여- ...중략... 좌파보건의료운동세력은 연합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좌파 보건의료운동이 전체운동과 어떻게 공조하면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진보의련이 나가야 할바는 시민운동방식의 보건의료운동을 극복하고 민중운동 지향의 보건의료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3-5면)

둘째, 진보의련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 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 1.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한다”(3면)

- 진보의련이 반(反)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하는 조직임과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지향함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임.

- 여기의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① 반자본 진보노선을 표방하며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사회주의를 상징)을 지향하고 ② 특히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데서 명백히 나타나 있음.

세째, 보건의료운동이 ‘계급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운동권에서 지칭하는 ‘계급운동’이란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의 이익과 목적을 관철하는 운동으로 자본가계급의 억압착취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투쟁방식의 사회주의운동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사회주의 계급운동론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급운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주체성과 계급성은 변혁적 보건의료운동이 지녀야 할 핵심가치이다...”(4면)



“ 시민운동중심의 탈계급적 보건의료개혁과 정책중심의 보건의료운동의 한계성을 폭로하고 변혁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9면)

“ 노동계급성에 기반한 진보적 실천을 내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회원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10면)

**네째, 맑스레닌주의운동 즉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실현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 .교육국 2000년 사업평가와 2001년 계획.... 중략... 전체운동이 이념적 혼동에서 헤메이고 개량화되었듯이 진보의련 조직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회원들이 자신의 철학,세계관, 이념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16면)

**다섯째, 현정권에 대항한 반자본/신자유주의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현정권 및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 2001년 진보의련 무엇을 할 것인가? ....중략...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자본주의노선에 입각한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1) 김대중정권과 총자본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에 맞서 투쟁한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변혁성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련의 임무이다”(8-9면)

**여섯째, 보건의료운동이 개량화되어 ‘사회변혁운동- 반자본주의운동’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아쉬어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운동의 본질이 사회변혁운동(반자본주의- 사회주의지향운동)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운동은 ...개량주의운동으로 경사되었다. 건강문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연결고리를 찾고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 반자본주의운동- 으로 위치지우려는 움직임이 약화되었다...”(16면)

“ 인간의 특성을 우리는 1)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측에 투쟁하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

###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1년 활동방향과 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정기총회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 반자본 사회주의운동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맑스레닌주의운동을 복원하여 보건의료부문에 계급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11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문 건 명 : 진보의련 2000년 정기총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2000. 2. 20)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2000년 정기총회 자료집》으로 동 단체의 1999년도 사업평가, 2000년 사업과제, 조직구성(개정안), 진보의련 회칙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제점

첫째, 보건의료운동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며,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정치이론의 핵인 계급투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타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불건강의 원인은 자본-임노동관계 자체이며, 보건의료운동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다... 중략...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 관계를 철폐해야 함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중략... 건강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의 하나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17면)

둘째, 진보의련 회칙의 전문과 제2조(목적)에서 동 단체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 회칙 전문...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중략...제2조(목적) 연합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한다”(19면)

-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임.

-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데서 나타나 있음.

-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관철하는 정신으로 북한에서는 ‘당성’이라고 하는데,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정신을 의미함.

세째, 진보의련이 좌파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건전한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서 현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활동평가... 중략... 지난 2년간 정지되었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다. 건강연대회의, 공공의료연대회의, 이상관 공대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실천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대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좌파적 보건의료단체간의 연대가 오랜만에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수 있다...”(6면)



내제, 보건의료상황 분석에서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좌익권과 북한에서 지칭하는 '노동계급성'이란 "노동계급이 자기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입장과 품성"(북한 정치사전, 1973년판, 321면)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보건의료운동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정신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보분석회의는 이념적으로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책적 무기를 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11면)

###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0년 활동지침을 수록하고 있는 정기총회자료집으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철폐하는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이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11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 1. 對 象

가. 문 건 명 : 2001년 진보의련 사업기조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의련 (2001)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 부문에서 좌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 진보의련)의 2001년 활동과제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2001년 진보의련 사업기조> 문건이다.

## 나. 문제점

첫째, 진보의련의 조직성격이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운동체 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때만 현실가능하다. 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 1.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보건의료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2. 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3.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진보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변혁(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한다”(1면)



- 진보의련이 반(反)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변혁에 기여하는 조직임과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지향함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임.

- 여기의 '보건의료의 사회화'란 사회주의적 개조를 의미하는데 이의 근거는 ① 반자본 진보노선을 표방하며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사회주의를 상징)을 지향하고 ② 특히 동 단체의 기관지인 <의료와 진보 4호>에 수록된 '보건의료의 역사와 전망'이란 글에서 "의료의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데서 나타나 있음.

둘째, 보건의료운동이 노동계급성에 기반하여야 하며, '계급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운동권과 북한에서 지칭하는 '노동계급성'이란 "노동계급이 자기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입장과 품성"(북한 정치사전, 1973년판, 321면)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급운동'이란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의 이익과 목적을 관철하는 운동으로 자본가계급의 억압착취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투쟁방식의 사회주의운동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내용은 결국 보건의료운동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계급운동론이 되어야 함을 고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진영은 의사폐업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중략... 그것은 계급운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주체성과 계급성은 변혁적 보건의료운동이 지녀야 할 핵심가치이다..."(2면)

"시민운동중심의 탈계급적 보건의료개혁과 정책중심의 보건의료운동의 한계성을 폭로하고 변혁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중략...노동계급성에 기반한 진보적 실천을 내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회원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6-7면)

셋째, 진보의련이 좌파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자인하며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진보의련이 보건의료부문에 현체제를 부정하는 좌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최근 보건의료운동의 질서재편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략...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연대뿐만 아니라 좌파 보건의료운동세력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좌파보건운동세력은 연합과 어떠한 관계를 유자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좌파 보건의료운동이 전체운동과 어떻게 공조하면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의련이 나가야 할 바는 시민운동방식의 보건의료운동을 극복하고 민중운동 지향의 보건의료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2-3면)

네제, 현정권에 대항한 반자본/신자유주의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현정권 및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 2001년 진보의련 무엇을 할 것인가? ...중략...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자본주의노선에 입각한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1) 김대중정권과 총자본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에 맞서 투쟁한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변혁성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이 진보의련의 임무이다”(5-6면)

### 3. 總 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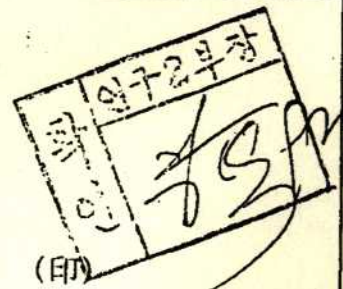
이 문건은 「진보의련」의 2001년 활동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기조서로 동 단체가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문에 반자본 사회주의운동에 복무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노동계급성을 견지하여 좌파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좌익성(左翼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年 11月 14日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柳 東 烈





## 1. 對 象

가. 문 건 명 : 97 진보의련 5월 월례강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1997.5)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보건의료운동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약칭:진보의련)의 97년 5월 월례강좌자료집으로 '현시기 경제상황과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맑스의 자본론관점을 수용하여 현시기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제점

첫째, 맑스엥겔스선집(MEW) 등을 직접 인용하며 자본론시각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을 왜곡분석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정치경제이론을 정당화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의 위기는 과잉생산의 위기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적인 대립행태에 있는 부(富)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부가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MEW 23.S.666)..."(4면) 외 5면 등 다수

“ ..노동자들의 화폐임금 혹은 그 실질가치는 저하하고, 생산성의 증대는 자본의 잉여가치 혹은 이윤의 증대(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로서 나타난다. 자본의 잉여가치는 증대하고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는 것이다“(29면)

들제, 자본주의체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자본주의체제의 붕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 생산성 임금제론이 비속하게라도 관철되는 한 조만간에 앞에서 그렸던 과정, 즉 자본주의의 폐지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28면)

### 3. 總 評

이 문건은 진보의련 회원들을 의식화학습하기 위한 월례강좌 자료집으로 맑스,엔겔스의 이론을 직접 인용하여 좌파적 시각에서 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상을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공산주의 이론을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문건은 용공성(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11 月 14 日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柳 東 烈

31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99년 정기총회

나. 작 성 자 : 김 철 응

다. 발행처(일)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1999)

2. 分 析

이 문건은 「진보의련」(약칭)의 1999년 정기총회 자료집중 일부로 조직개편안, 사업국-편집국 등 각 부서 사업평가 및 계획 등 일반적인 조직운영문제를 기술하고 있을 뿐, 이 내용중 북한노선을 고무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주장은 표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노선을 고무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국가변란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지 않는바, 좌익용공성이 없다고 분류된다..

2004 年 1 月 1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진보의련

## 2. 分 析

## 가. 개요

본 문건은 “진보의련”에서 발행한 11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의료보험제도를 비방선동하면서,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의료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나. 주요 문제내용

(1)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를 비판하고는 있으나, 마땅히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음.

## &lt; 예문 &gt;

-한국에서 의료보장의 실시...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노동자·민중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부대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여하튼 한국의 건강보험은 만족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1쪽)

(2) 자본주의가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을 질병에서 조차 차별화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 &lt; 예문 &gt;



-결국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현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상당한 정도로 불건강한 노동계급과 건강한 엘리트(자본계급 및 중간계급)로 차별되게끔 만들었다...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힘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보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8쪽)

(3) 현재의 의료보장체제로 노동자·민중의 건강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현재의 의료보장체계로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건강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보건의료부문 내에서 보자면...현재의 의료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9-10쪽)

### 3. 總 評

본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의료보장에서 조차 노동자와 자본가계급 등을 차별화시키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진영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투쟁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의료를 실시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특별히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인식, 신념, 태도를 표시한 내용이 없는 [반정부성] 문건임. < 끝 >.

2004 年 1 月 1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송 경 호 印